

2021년 10월 17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3편 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37(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4장 12~19절(신약p.382)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 ◎ 말씀선포 / 영광스러운 고난

지스레지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또 죠지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쟁론하며 낙심 하라고 보내시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고난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삶의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의를 추구하다가 불의한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죄를 범하여 고난을 자초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

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의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하는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1.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 성도가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좇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 세상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란 헬라어 “알로트리에피스코포스”로서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상관하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과 물질에 관심을 가지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다른 이의 재산이나 물질을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성도가 이러한 일로 고난을 받는다면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 하는 자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경우는 때로 성도 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힌바 되지 못하여 자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을 떠나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스스로 죄의 길로 행할 뿐 아니라 악한 일도 서슴없이 행함으로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나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철저히 십자가에 나 자신을 쳐 복종하며 과거의 악행들과 철저히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성도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 본문 12~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 했고, 16~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 했습니다.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심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법을 초월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은 반드시 박해를 가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인해 자신들의 더러움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가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불 시험을 당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영광스럽고 기쁜 일로 여기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 시험이란 헬라어 “퀴로세이”로서 그 원형은 “퀴로시스”입니다. 사실 이 말은 “불 시험”이기보다는 “불같은” 시험이라 번역함이 옳은데 그렇다면 불같은 시험이란 어떤 시험입니까? 금은이 용광로에서 제련되는 것처럼 믿음을 위한 시험으로 사실 이 시험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려는 연단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성도의 삶 속에 불과같이 맹렬하게 일어나며, 예고 없이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임하는 시험으로, 모든 것을 태우고 사라지게 하며 이로 인하여 고통을 주며 소망까지

사라지게 할 정도의 시험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와 전도자들은 대부분 복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고난은 성도에게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역시 성도들에게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위장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순교를 당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뵈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함으로 소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가리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심정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42(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 폐 회 / 주기도문